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 이하 검역원)은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건강한국! 청정한국! 제2의 도약!”을 위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검역원은 설립 100주년을 맞아, 1909년 7월 '수출우검역소'로 출발한 근대 수의업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검역원의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검역원은 지난 1909년 7월 '수출우검역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근대 수의업무를 시작했다. 수출우검역소는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국내의 한우를 안전하게 일본으로 수탈해가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국내 최초의 수의전문기관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검역원은 수의업무를 꾸준히 발전시켜, 1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의검역기관으로 성장했다.



▲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국민건강을 위해 제2의 국방인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유공자 포상에서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 박성오 수의사 등 관련업계 유공자들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포상이 있었다.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제화·개방화 시대,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나 온 1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수의과학 발전을 위한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검역원은 100년 전에는 주권상실, 지금은 주권확인의 현장”이라며, “다가올 100년의 역사는 세계 건강 축산업의 선도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 중 첫날 개최된 검역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전 검역원장들을 비롯한 업계 원로들과 학계,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검역원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 열린 해외과학자 초청강연회에서는 수의 분야 전문가인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주한수 교수 등 2명을 초청하여 양돈질병 및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수의과대학생, 시민 등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미경 관찰, 검역탐지견 시연 등 검역원이 하는 일에 대한 체험행사를 벌였으며, 100주년 축하공연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검역원 직원 및 가족 등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인간을 위해 희생된 동물의 넋을 위로하는 동물위령제와 지난 100년의 역사를 담은 자료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또, 수의·축산 관련 기관, 업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친선축구대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현장취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주년 기념행사



▲ 비전선포식에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원”이라는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선포했다.



▲ 대강당동 앞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비



▲ 100주년 기념사진전에는 국내 수의학의 역사와 검역원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그리고 제1회 ~제3회 전국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등 총 55점이 전시됐다.



▲ 친선 축구대회는 관련업계에서 11개 팀이 참석하여 리그전을 펼쳐 우승팀을 가렸다. 이번 우승은 CTC바이오가 차지하였으며, 월간양계를 비롯 언론사에서도 기자축구단을 구성, 참가팀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100주년 행사를 빛내주었다.

이주호 원장은 “검역원은 100년 전에 일본인을 위해 설립됐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의 안전 식탁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임무로서 검역원이 존재한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원’이라는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고, “앞으로 ‘건강한국’, ‘청정한국’으로 나아가는 세계속의 검역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